

“1500년 역사를 캔다” 설레는 가슴…가쁜 숨 몰아쉬며 잠수 또 잠수



리포 진도 오류리 해저유물 발굴 현장

한치 앞 안보이는 바다 속 바닥에 얼굴 대고 작업
“새까맣게 그을린 피부가 보물창고의 출입카드죠”

“빨이 많아 라이트를 켜도 한 치 앞을 볼 수 없어요. 머리를 바다에 코 닿을 정도로 바짝 대고 보일까 말까 합니다. 그래도 하나만 건지면 뭔가 나올 것 같아 금세 다시 들어갑니다. 흥분돼 잠수병 걱정 할 생각을 못합니다.”

28일 진도군 고군면 오류리 일대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의 ‘2차 수중 발굴 조사’ 현장.

아시아 최대 수중 발굴선 누리안호(290t)에 탑승한 발굴단 20명의 얼굴에는 기대감이 가득했다. 금세 떠밀릴 것 같은 울퉁퉁 물살과 맞서며 하루 9시간 넘게 빨발을 해매고 다니는 고통은 찾아볼 수 없었다.

진도 앞 바다에 잠들어있는 1500년 전 보물을 세상 밖에 내보이는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는 자부심이 엿보였다.

이들이 지난 4월 28일부터 3개월 동안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빨발에서 더듬어 가며 찾아낸 유물만 300여 점. 조사 대상 해역의 고작 15% 정도만 발굴이 이뤄졌는데도, 유물이 쏟아지고 있다. 이 때문에 조사 해역을 확대하면 훨씬 많은 국보급 유물과 희귀한 보물을 발굴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도 적지 않다.

유물 가치도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다. 조선시대 뿐 아니라 국내 최초로 수중에서 삼국시대 유물까지 발

굴했다. 지난 1976년 국내에서 수중 발굴조사가 시작된 뒤 조선시대 유물이 발견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들 사이에 새까맣게 그을린 피부가 ‘문화재 ‘보물창고’로 안내하는 전용 출입 카드’라고 불리는 이유이기도 하다.

물론, 1500년 동안 잠들어 있던 유물을 세상 밖으로 내보이는 게 쉬운 일은 아니다. 수심 3~20m 수온이 저만 한 치 앞도 보기 힘들 정도로 혼탁한데다, 빠르고 번덕스런 조류는 목숨을 위협할 정도다.

잠수사가 바다 속에서 문화재를 탐사할 때 연구원들은 물 밖에서 화면에서 눈을 떼지 않고 잠수사를 지켜보는 등 2인 1조로 작업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강대훈(53) 잠수팀장은 “산소통, 헬멧 등 25kg에 달하는 장비를 매고 하루 4시간씩 작업하다 보면 숨조차 쉬기 힘들 지경”이라며 “하지만 유물 하나만 발굴하면 무더기로 나올 것 같아 가슴이 설레 또 들어가고 싶다”고 말했다. 이들 연구원 및 잠수사들은 앞으로 나올 다양한 국보급 유물 뿐 아니라 침몰한 선박을 찾을 수 있을 지 모른다는 기대감도 내비쳤다.

신종국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연구원은 “오류리 해역의 특성상 발굴에 어려운 점이 많지만 목표를 하는 선박 발견까지 한마음으로 작업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진도=박정렬기자 halo@kwangju.co.kr



진도 오류리 해역 탐사를 위해 주저 없이 바다에 뛰어드는 잠수사의 모습. 안전 등을 이유로 바다 안과 밖에서 잠수사와 연구원은 2인 1조로 짝을 지어 탐사 활동을 벌이고 있다.



해양문화재연구소는 진도 오류리가 물살이 빠른 울퉁퉁 해역이라는 점에서 과거 침몰한 선박을 발견할 가능성이 매우 큰 것으로 보고 있다. 과거 배를 정박시킬 때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돛들’은 그런 추정을 뒷받침해 주는 ‘증거’다.

진도=박정렬기자 halo@kwangju.co.kr

광주 평동軍 포사격장 장성으로 이전 ‘금물살’

군 용역조사 결과 ‘타당’

장성군의 반발 등으로 주춤했던 광주 평동 군(軍) 포 사격장 이전이 금물살을 탈 것으로 전망된다.

29일 광주시에 따르면 육군 교육사령부가 평동 포 사격장(74만평)을 장성보병학교 종합훈련장 내로 이전이 가능할지에 대해 조사한 결과, 이전이 타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광주시는 최근 국방부에 포 사격장 이전을 신청해 이르면 다음달, 또는 10월 내로 이전 승인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동안 광주시는 포 사격장 이전을 위해 보병학교 종합훈련장 인근 부지 30만~48만평가량을 매입하는 방안을 타진했지만, 장성군이 극구 반대함에 따라 포 사격장 이전이 진전을 보지 못했다.

광주시는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포 사격장 이전을 추진하고 있다. ‘기부 대 양여’ 방식이란 광주시가 포 사격장 이전 전체 비용을 부담하고 포

사격장 부지를 국방부로부터 무상으로 기증받는 것이다.

시는 군의 용역 조사 결과 포 사격장 이전이 타당성 있는 것으로 나타내다 장성군수도 보병학교 종합훈련장 내 이전에 대해서는 반대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힌 적이 있기 때문에 이전에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광주시는 포 사격장 이전 문제가 풀리면 인근 동백훈련장(124만 평)의 영광군 이전도 순조롭게 진행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동백훈련장 이전 대상지인 영광군 아산 부지는 경사도가 높고 효용가치도 떨어지기 때문에 소유주들도 사주기를 바라는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시는 포 사격장과 동백훈련장이 이전하면 해당 부지를 자동차 생산단지조성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시는 또 빛그린산단을 자동차 100만대 생산도시 육성부지로 활용하겠다는 구상도 함께 하고 있다.

박정렬기자 lucky@kwangju.co.kr

□ 유물 발굴 전용 인양선 ‘누리안호’



아시아 최대 수중발굴선 ‘누리안호’ 8명이 80m 심해서 동시작업 가능

진도 앞바다 삼국·조선시대로 통하는 역사의 문 앞에는 아시아 최대 수중 발굴선 ‘누리안호’가 버티고 있다.

누리안호는 해양문화재연구소가 지난 2010년부터 47억원을 들여 제작한 전문 인양선. 해양 유물 발굴의 시설·장비의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렸

다는 문화계 안팎의 평가를 받고 있는 선박이다.

지난해 12월 취항한 뒤 인천 영흥도 섬업해 해역을 거쳐 지난 7월 25일부터 진도 오류리 해양 발굴 작업에 투입됐다.

누리안호의 최대 장점은 잠수통제실, 80m 심해에서 동시작업하는 잠

수사의 화면을 최대 8명까지 전달받을 수 있다. 물 밖에서 수중 잠수사에 게 실시간 지지도 이뤄질 수 있다.

선박 통제실에 전송된 화면과 음성을 해양문화재 연구소 사무실에서도 무선으로 전달받는 게 가능하다. 유물의 매장상태, 위치 등을 실시간으로 기록할 수 있어 학술 연구에 도움을 주고 있다.

또 누리안호 내부에는 수중 발굴을 위한 각종 잠수장비와 유물의 인양·보관설비, 잠수사 감압챔버(잠수시 공기압을 조절하는 시설), 발굴현장을 감시하는 열영상 관측시스템이 들

어있다.

최대 20명의 조사단이 한 번 출항으로 최대 20여 일간 체류할 수 있도록 요리실, 수면실 등을 갖춰 발굴단의 생활도 한층 편해졌다.

노경정 해양문화재연구소 연구원은 “바지선 위에서 물에서 싸운 도시락으로 끼니를 때울 때도 있는데, 누리안호 덕분에 발굴에만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 것 같다”고 말했다.

누리안호는 총 290t으로 길이 36.4m, 폭 9m, 깊이 4m에 달하며 최대 14노트의 속력으로 항해한다.

박정렬기자 halo@kwangju.co.kr

빛의만평

- 김중두



덜어주긴 커녕 ..

일본 전문
DREAM LAND
http://www.DLJPN.co.kr

추석연휴 무안 ↔ 오사카 항공 전세기

출발일시 9월 19일 07:00 무안출발 - 21일 23:30 무안도착

아시아나 항공 전세기

온천휴양 + 힐링코스

와카야마 디럭스 온천 숙박 3일 135만원

역사탐방 + 휴양코스

오사카, 나라, 교토 숙박 3일 129만원~

가족동반 위락시설

오사카, 유니버설 스튜디오 3일 135만원

광주 아시아여행사
062) 228-3000

광주 샘투어
062) 515-7667

광주 삼성드림투어
062) 951-1360

목포 모두모아여행사
061) 453-0008

목포 여행나라
061) 262-3400

여행상품 가격포함내역 공항이용료, 전정보험료, 관광진흥개발기금, 운송/숙박/식사요금, 가이드경비, 여행자보험료, 현지관광입장료 등 반드시 고객이 부담해야 하는 모든 경비 포함(단, 개별여행상품은 미적용). 유류할증료는 상기상품 가격의 별도 지불되며 적용되는 환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 여행일정이 변경되는 경우 여행자의 사전 동의를 받습니다. ■ 관광사업자 등록번호 : 제 2010-4 호(광주광역시 남구청) ■ 2억원 보증보험 가입 ■ 숙소 : 일일호텔이상 ■ 교통편 : 항공